



한기주·유원상 등 루키들 시선집중

(KIA)

(한화)

- ① 8개 구단별 전력 분석
- ② 떠오르는 선수는 누구
- ③ 예상되는 각종 기록들
- ④ 야구야 놀자...시즌개막

■ 미리 보는 2006 프로야구

올 시즌 프로야구 8개구단의 화두는 새 내기들의 활약!
8개 구단의 전력 평준화 현상이 뚜렷해진 올 시즌 프로야구는 그 어느 시즌보다도 '신입'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각 구단의 기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용병 서브넵·호세 반란 예상

올 시즌은 신인 사상 역대 최대인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KIA에 입단한 '황금 팔' 한기주, 계약금 5억5천만원을 받은 투수 유원상(한화) 등 새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또 일본프로야구(오릭스), 미국프로야구(뉴욕메츠)를 거쳐 다시 한국에 복귀한 구대성(한화)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다.
'신입 용병' 서브넵(KIA)과 돌아온 '검은 갈매기' 펠릭스 호세(롯데), 매니 아이바(LG), 캄빈 피커링, 시오타니 가즈히코(이상 SK) 등 새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프로야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상할 여가들 눈에 띄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대형 신인투수들이

가세로 재미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시절 한기주 등과 빅3를 형성한 나승현(롯데·계약금 3억), 류현진(한화·계약금 2억 5천만원) 등 지난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때 맹활약한 선수들이 생애 한번뿐인 신인왕 등극을 노리고 있다. 또한 시범경기에서 10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80에 삼진 12개를 빼앗은 현대 좌완투수 장원삼도 강력한 신인왕 후보자이다.

▲대반란 꿈꾸는 용병들
올 시즌 용병 중 역시 최대 관심거리는 롯데의 펠릭스 호세, 그가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 올 시즌 프로야구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돌아온 구대성 부활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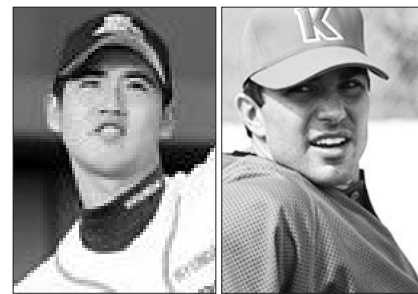
이에 맞서는 KIA의 서브넵도 시범경기에서 안정된 타격감을 뽐내며(타율 0.333) 한국야구 적응에 합격을 받은 상태다. 또 한화 이글스의 터줏대감 제이 데이비스와 지난해 홈런왕인 래리 서튼(현대), 첫 일본인 선수인 시오타니 가즈히코(SK) 등도 주목 대상이다.

▲구대성 '대성불패 신화' 다시 한번



<나승현>

<유원상>



<장원삼>

<서브넵>

한화는 돌아온 구대성을 높게 신뢰하고 있다. 특히 마무리를 구대성이 꿰차면서 한화는 전력 자체가 가장 향상된 팀으로 꼽힌다.

구대성의 기량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직구 스피드는 떨어져 130Km대 중반에 불과하나 날카로운 슬라이더와 안정된 제구력은 여전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세가지 칼 쓰는 사무라이”

日 ‘스포츠 호치’ 보도 “배트 무게 세종류 사용”

‘이승엽은 마치 세 가지 칼을 사용하는 사무라이 같다’
일본프로야구 개막 3연전에서 폭발적인 타격을 선보인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대한 일본 매체들의 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계열의 스포츠 호치는 4일 ‘이승엽은 컨디션에 따라 무게와 재질이 다른 3가지 배트를 사용한다’고 보도하며 이를 ‘三刀流’ 사무라이라고 비유했다.

일반적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 내내 손에 익은 한 종류의 배트를 사용하지만 이승엽은 배트 케이스에 860g, 900g, 930g 등 세 종류를 갖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프로야구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주로 930g짜리 배트를 애용했으나 2년전 롯데 지바 마린스로 이적한 이후에

는 860g 방망이를 사용해 무게 차를 무려 70g이나 줄였다.

또 최근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홈런 5개를 쏟아낸 당시에는 860g과 930g짜리 방망이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승엽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방망이를 900g짜리로 바꿨다.

스포츠 호치에 따르면 이승엽은 개막 당일 팀 동료인 니오카와 가메이가 애용하고 있는 900g짜리 배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립을 깎아내는 등 급하게 자신의 손에 맞춘 뒤 들고 나가 3연전에서 홈런 두 방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현재 쓰고 있는 900g짜리 방망이가 맘에 든다”고 밝혔지만 시즌 중 타격상태나 피로도에 따라 무게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 호치는 이미 일본내에서 ‘슈퍼스타’로 떠오른 이승엽의 홈런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수많은 보도진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정작 본인인 가장 신경쓰는 부문은 홈런이 아닌 타점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승엽 내년에 美 다저스와 계약할 것”

‘애리조나 리퍼블릭’ 보도

리그 신인왕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한국 프로야구 삼삼에서 56개의 홈런을 때려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이승엽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다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고 일본 롯데 마린스와 2년 계약했고 이번 시즌이 끝난 뒤 바리크에 재도전하기 위해 요미우리와 1년 계약했다.

이승엽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 한국 대표팀에서 뛰며 4경기 연속 홈런 등 5개의 홈런을 때려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타점에서도 공동 1위(10타점)에 오르는 등 세계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았다.

이신문의 칼럼니스트 조셉 A. 리브스는 특별한 설명없이 ‘라이언 킹’ 이승엽이 요미우리와 1년 계약이 끝난 뒤 다저스와 장기계약을 하고 2007년 내셔널

‘박주영 도전은 계속된다’

‘주목할 선수’에 올라 독일 월드컵 홈피 소개

‘박주영의 도전은 계속된다’
아드보카트호의 ‘젊은 피’ 박주영(21·FC서울)이 독일 월드컵축구 공식 홈페이지 한글판(kr.fifa.com/worldcup.yahoo.com/06/kr/)이 소개하는 ‘주목할 선수(Players to watch)’에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선수(Players to watch)’ 코너는 독일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그동안 ‘태극전사’로는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백지훈(21·FC서울) 등 2명이 다뤄졌다.
아직 영어판 홈페이지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한글판이 ‘박주영의 도전은 계속된다’는 제목으로 먼저 기사를 올렸다.
홈페이지는 박주영에 대해 “한국에서

는 ‘주목할 선수’라고 불리기에 너무 잘 알려진 선수’라며 “수많은 경기에서 중요한 골을 넣으면서 한국 축구계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월드컵 본선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소제목으로 박주영을 다룬 홈페이지는 “젊은 공간을 돌파하는 섬세한 드리블과 감각적인 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칭찬했다.
홈페이지는 또 “프로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당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있던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도 박주영을 대표선수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며 “티 아드보카트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이후에도 꾸준히 대표팀에 뽑혀 15 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이라고 칭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체육중 우승

양궁종별선수권 여중단체

광주체육중이 제4회 전국남·여양궁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광주체육중은 4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중부 단체전에서 4,008점을 쏘대전체육중(4,004점)을 4점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진해여중은 3,976점으로 3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5일(수)

- ▲메이저리그(미네소타-토론토)(08 : 05·Xports), <애틀랜타-LA다저스>(11 : 00·Xports)
- ▲헝가리 전 국가대표 축구연맹전(전주국제대-세경대)(14 : 00·KBS SKY

여수정보고 아쉬운 3위

YMCA 전국유도대회

여수정보고가 제7회 YMCA전국유도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여수정보고는 4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중부 단체전에서 4,008점을 쏘대전체육중(4,004점)을 4점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진해여중은 3,976점으로 3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PORTS)

-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결승 3차전(동부-오리온스)(19 : 00·Xports)
- ▲K-리그(포항-인천)(18 : 50·SBS스포츠),(서울-대구)(20 : 00·MBC ESPN, 20 : 00·KBS SKY SPORTS)
- 6일(목)
- ▲UEFA 챔피언스리그 8강2차전(유벤투스-아스날)(03 : 30·MBC ESPN)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387 (2005하연316) 면책</p> <p>파산자 신기선 (730719-*****)</p> <p>주소 순천시 매곡동 27-9</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440 (2005하연355) 면책</p> <p>파산자 유은영 (741027-*****)</p> <p>주소 순천시 덕암동 375-40</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507 (2005하연598) 면책</p> <p>파산자 정소영 (730116-*****)</p> <p>주소 광주 광산구 신창동 1268 신창지구 도시공사아파트 102동 401호</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551 (2005하연3630) 면책</p> <p>파산자 문환식 (691223-*****)</p> <p>주소 순천시 해평면 신화리 444</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581 (2005하연650) 면책</p> <p>파산자 김춘자 (470616-*****)</p> <p>주소 여수시 여서동 479 부영아파트 607동 901호</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676 (2005하연716) 면책</p> <p>파산자 문복덕 (721128-*****)</p> <p>주소 북포시 삼동 886 우성아파트 102-402</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689 (2005하연727) 면책</p> <p>파산자 문용선 (721118-*****)</p> <p>주소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4블럭1로트 참여여비빌 206동 901호</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696 (2005하연733) 면책</p> <p>파산자 김영화 (721121-*****)</p> <p>주소 광주 광산구 도산동 925-34</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712 (2005하연741) 면책</p> <p>파산자 이철호 (580616-*****)</p> <p>주소 순천시 생목동 34-57</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768 (2005하연482) 면책</p> <p>파산자 임영근 (500427-*****)</p> <p>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성리 686 대성빌라 201호</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771 (2005하연537) 면책</p> <p>파산자 정영국 (700120-*****)</p> <p>주소 광주 북구 임동 340 주공아파트 106동 602호</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792 (2005하연796) 면책</p> <p>파산자 김재구 (510517-*****)</p> <p>주소 광주 북구 두암동 830-36</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801 (2005하연604) 면책</p> <p>파산자 김옥단 (680215-*****)</p> <p>주소 목포시 연산동 1262 주공1단지아파트 101동 1303호</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	<p>면책결정 공고</p> <p>사 건 2005하연1196 (2005하연846) 면책</p> <p>파산자 정철명 (420620-*****)</p> <p>주소 여수시 병산동 273-13</p> <p>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p> <p>2006년 3월 31일</p> <p>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p>